'자연과의 전쟁' 브리티시오픈 막 올랐다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골프대회 브리티시오픈이 1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2시30분 막을 올렸다. 비를 잔뜩 머금은 날씨 속에 바람마저 거세 인간과 자연의 치열한 전쟁이 될 전망이다. 1860년 첫 대회를 열었던 브리티시오픈은 1, 2차 세계대전 등으로 몇차례 대회가 취소됐지만 제139회 대회를 골프의 성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7305야드)에서 치르게 됐다. 대회에는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세계 1위를 노리는 필 미켈슨(미국)과 함께 최경주(40), 양용은(38) 등 9명의 한국계 선수들이 출전했다. /연합뉴스

송기진(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은행장이 15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임직원 1568명이 청약한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청약주 3680주를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기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FC 시민주 공모 목표 50% 달성

27일부터 40일간 2차 공모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시민주를 공모한 결과 목표액의 50%가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시민프로축구단 시민주 공모를 한 결과, 목표액 9억9500만원(19만9900주)의 50%인 5억원(10만주)을 모금했다.

공모에 참여한 주요 기관은 ▲생활체육회 임직원 6만70주 ▲시체육회 2만주 ▲광주은행 3680주 ▲KBC 광주방송 3180주 ▲5개 자치구 축구연합회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등 19개 종목별 가맹단체 2020주 ▲광주·전남 불교신도회 2205주 등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첫 월급 절반을 시민주 공모 청약금으로 내놓았으며, 지역 국회의원 7명도 1400주를 매입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시민주 공모 기간이 끝나는 만큼 2차 공모에 나설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2차 공모에 나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축구대표팀 감독 잘해야 본전?

최강희·홍명보 등 "소속팀이 먼저" 줄줄이 고사

축구협 '기술위' 연기…차기 감독 발표 늦어질 듯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허정무 감독에 이어 축구대표팀을 이끌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차기 사령탑으로 국내 지도자를 뽑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12~13명의 전·현직 K-리그 지도자를 후보에 올렸다. 그리고 이번 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아예 새 감독을 확정해 발표까지 하려 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술위원들의 요청이 있어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기술위원회는 22일 열릴 축구협회 이사회 이전에는 인선 작업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꼽힌 지도자들이 줄지어 고사 의사를 밝히면서 기술위원회로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해성 대표팀 코치를 비롯해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게다가 최강희(전북 현대), 황선홍(부산 아이파크) 등 현직 K-리그 감독들도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이 먼저'라면서 줄줄이 고사하고 있다.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2003년 2월~2004년 4월) 대표팀에서 코치를 역임했고, 지난해 전북을 K-리그 정상으로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최강희 감독조차도 "나는 대표팀을 맡을 능력이 안된다. 완성된 지도자라면 상관없지만 나는 더 배워야 한다"며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부담감이 커서다. 무엇보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축구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이룬 허정무 감독의 성공이 차기 감독에게는 큰 짐이다.

당장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에서는 선수들에게 새롭게 동기를 부여해 구체적 성과도 이끌어내야 한다.

/연합뉴스

"마라도나 감독 4년 더"

아르헨 축구協 유임 가닥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디에고 마라도나 대표팀 감독에게 4년 더 지휘봉을 맡기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브라질월드컵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마라도나에게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르네스토 비알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대변인은 "훌리우 그론도나 축구협회장이 다음 주 중 마라도나를 만나 세부 계약 내용을 알리고 향후 거취를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비알로 대변인은 이어 "남아공월드컵에서의 성적이 기대보다는 못하지만 그동안 대표팀의 성적을 생각하면 당황스러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감싸며 "마라도나 외에 다른 감독 인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박지성이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15일 2010~2011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박지성은 루니, 퍼디난드 등과 함께 맨유가 공개한 새 유니폼의 대표 모델 중 한 명으로 홈페이지를 장식했다. /연합뉴스

맨유 새 유니폼 공개…박지성 "빨리 입고 싶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010~2011 시즌에 새로 입고 나설 유니폼을 공개했다.

맨유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시즌부터 착용할 홈 경기 유니폼을 발표하면서 "나이키가 제작한 새 유니폼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들어졌다"며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세탁을 마치고 나서 재료를 녹여 섬유를 만들었다. 기존 섬유보다 30% 이상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막아주는 친환경 제품이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 역시 이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나이키가 제작한 친환경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박지성은 맨유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새 유니폼이 마음에 든다. 더욱 밝아진 느낌이고 빨리 입었으면 좋겠다"며 "정말 에너지가 가득 차는 느낌이 든다. 팬들 역시 많이 기다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슴에 새로운 스폰서인 에이온(AON)의 로고가 가슴에 새겨진 홈 유니폼은 붉은색 상의에 흰색 바지로 이뤄져다. /연합뉴스